

2016년 추가 표준어·표준형 목록

○ 추가 표준어(4항목)

추가 표준어	현재 표준어	뜻 차이
걸판지다	거방지다	<p>걸판지다 [형용사] ① 매우 푸지다. 예 술상이 걸판지다 / 마침 눈먼 돈이 생긴 것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걸판지 게 사지.</p> <p>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. 예 싸움판은 자못 걸판져서 구경거리였다. / 소리판은 옛날이 걸판지고 소리할 맛이 났었지.</p>
		<p>거방지다 [형용사] ① 몸집이 크다.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. ③ =걸판지다①.</p>
걸울음	건울음	<p>걸울음 [명사]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. 예 꼭꼭 참고만 있다 보면 간혹 속울음이 걸울음으로 터질 때가 있다.</p> <p>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. 예 눈물도 안 나면서 슬픈 척 걸울음 울지 마.</p>
		<p>건울음 [명사] =강울음. 강울음 [명사] 눈물 없이 우는 울음,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.</p>
까탈스럽다	까다롭다	<p>까탈스럽다 [형용사] ① 조건,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. ‘가탈스럽다①’보다 센 느낌을 준다. 예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/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/ 가스레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까탈스러운 숯 굽기 작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비칠 수도 있겠다.</p> <p>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. ‘가탈스럽다②’보다 센 느낌을 준다. 예 까탈스러운 입맛 / 성격이 까탈스럽다 / 딸아이는 사 준 옷이 맘에 안 든다고 까탈스럽게 굴었다.</p> <p>※ 같은 계열의 ‘가탈스럽다’도 표준어로 인정함.</p>
		<p>까다롭다 [형용사] ①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.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.</p>
실뭉치	실뭉당이	<p>실뭉치 [명사]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. 예 뒤엀킨 실뭉치 / 실뭉치를 풀다 / 그의 머릿속은 엉클어진 실뭉치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.</p>
		<p>실뭉당이 [명사]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.</p>

2016년 추가 표준어·표준형 목록

○ 추가 표준형(2항목)

추가 표준형	현재 표준형	비고
엘랑	에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‘에는’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‘엘랑’을 표준형으로 인정함. ‘엘랑’ 외에도 ‘르랑’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‘에설랑, 설랑, -고설랑, -어설랑, -질랑’도 표준형으로 인정함. ‘엘랑, -고설랑’ 등은 단순한 조사/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. (예문)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. 교실에설랑 떠들지 마라. 나를 앞에 얹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.
주책이다	주책없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‘주책없다’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‘주책이다’를 표준형으로 인정함. ‘주책이다’는 ‘일정한 짓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’을 뜻하는 ‘주책’에 서술격조사 ‘이다’가 붙은 말로 봄. ‘주책이다’는 단순한 명사+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. (예문)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‘나도 참 주책이군’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※ 2016년 10월 김밥의 표준 발음에 **[김:뽕]**도 인정되어 [김:밥/김:뽕] 모두 표준 발음입니다.